

---

# 근대 일본 여성운동에서의 생명주의와 우생학: 『세이토(靑鞆)』의 섹슈얼리티 정치학을 중심으로\*

김병진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다이쇼기 근대화된 여성의 신체관: 생명주의의 영향
- III. 폐창 논쟁과 여성운동: 우생학의 영향과 섹슈얼리티 정치학에의 도전
- IV. 나가는 말

## 국문초록

『세이토(靑鞆)』는 메이지유신 이후 강화되어 가던 현모양처의 이데올로기에 의문을 제기하던 여성들을 대변해 '신여성'을 자처하고 1910년대 일본의 여성운동을 이끌었다. 일본은 근대화 이후 가부장제의 논리를 강화시키며 여성을 아내와 창부로 분단하고서 여공 등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비가시화해 갔다. 『靑鞆』의 여성 지식인들도 이러한 전제를 내면화하는 한계점을 보였다. 하지만 낙태 논쟁에서는 제도 내 여성의 성과 생식에서의 자기결정권에, 폐창 논쟁에서는 제도 밖의 여성의 성을 핵으로 한 인권이 조명되었다.

또한 히라쓰카 라이초의 우생학과 이토 노에의 생명주의의 경우처럼 당시 과학적 사유가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에 개입한 정도도 확인하였다. 이들의 한

---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 B8069796).

계성으로 지적받는 이러한 측면이 당시 문맥에서는 과학성의 보증과 사상적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외연 확대를 꾀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주제어: 세이토(靑鞆), 낙태, 폐창(廢娼), 생명주의, 우생학, 이토 노에(伊藤野枝),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

## I. 들어가며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 여성의 평등, 해방, 지위 개선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여러번 이어졌다. 진보적인 담론으로는 계몽사상의 모리 아리노리(森有礼)나 후쿠자와 유키치(福沢諭吉)의 남녀동등론, 자유민권운동가인 기시다 도시코(岸田俊子)나 후쿠다 히데코(福田英子)의 정치참가론, 사회개량운동의 이와모토 요시하루(巖本善治)의 기독교적 가족론 등이 있다. 한편 보수적 담론으로는 여성의 순종을 논한 호즈미 야쓰카(穂積八束)의 부덕론(婦德論)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위해야 할 점은 아무리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진보사상이라 할지라도 이들 논의는 ‘여자도 국가에 헌신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sup>1</sup> 그렇기에 결과적으로는 여성을 국가에 헌신할 수 있는 현모양처라는 역할에 수렴시켜버리고 말았다.<sup>2</sup> 그 이후로도 페미니즘은 국가에 대한 공헌이라는 내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채 전개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11년 9월 여류문학자의 배출을 목적으로 여성들의 손에 의해 『세이토(靑鞆)』가 창간되었다. 편집장인 히라쓰카 라이초(平塚らいてう)를 비롯해 야스모치 요시코(保持研子) 등 5명의 발기인으로 출발한 찬조원으로 하세가와 시구레(長谷川時雨)와 요사노 아키코(与謝野晶子), 사원으로 이와노 기요코(岩野清子), 노가미 야에코(野上弥生子) 등 당시 가장 문화적이라 불리던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훗날 오다케 고키치(尾竹紅吉), 가미치카 이치코(神近市子), 그리고 히라쓰카에 이어 2대 편집장이 되는 이토 노에(伊藤野

1. 加野彩子, 『日本フェミニズム論争史①母性とセクシュアリティ』, 江原由美子-金井淑子 編, 『フェミニズム』, 新井藤社, 1997, 196~197쪽.

2.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女—明治・大正の女の言説を巡って」, 『思想』812号, 1992, 211~230쪽.

枝) 등도 합류하게 된다. 『靑鞆』는 처음부터 여성이라는 카테고리를 전제로 자기주장을 하는 집단이었다. 같은 해 문예협회에서 공연된 입센의 『인형의 집』의 주인공 노라가 모델이 되어 『靑鞆』에 모인 여성들은 ‘신여성(新しい女)’이라 불렸는데 그들도 이러한 칭호를 받아들였다. 종래의 부덕을 강조한 양치현 모라는 여성의 삶의 방식을 의문을 품고 움직이기 시작한 전국 방방곡곡의 여성들을 대표해 ‘신여성’을 모토로 자기주장을 펼치며 1910년대 일본에서 여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이끌어가게 된다.<sup>3</sup>

특히 『靑鞆』의 대미를 장식한 정조·낙태·폐창(廢娼) 논쟁은 가부장제도 아래에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여성들이 섹슈얼리티를 돌파구로 삼아 폐쇄적 상황을 돌파하려는 과감한 시도라 평가받는다. 이와부치 히로코(岩淵宏子)에 따르면 메이지기의 이른바 근대화 이후 대다수 여성에게 공격 생활은 사라지고 아내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사적인 생활만이 있을 뿐이었기에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섹슈얼리티 문제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었다고 한다.<sup>4</sup> 물론 이러한 시각은 노동하는 여성과 단절된 문단 중심의 여성 지식인집단의 도전이라는 한계는 엄연히 놓여 있다. 왜냐하면 러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야 남성 공장노동자의 비율이 여성노동자의 수를 상회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를 세계 페미니즘 운동의 동향과 비교해 보면 여성의 시민적 권리를 추구했던 제1차 페미니즘운동에 비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걸쳐 섹슈얼리티의 문제, 즉 성과 생식이라는 사적 영역으로 관철된 정치학에 도전한 제2차 페미니즘 운동의 내용을 선점했다고도 이야기된다.<sup>5</sup>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 여전히 논의되고 있는 “reproductive health/rights”(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권리)와 성의 상품화 문제와도 관련해 현대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문제의 출발지점을 들

3. 『靑鞆』와 관련한 신여성 논의에 대해서는 손지연, 「근대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여성문학연구』27호, 2012, 241~268쪽)이 있다. 또한 한일 신여성론의 비교는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을 참조.

4. 岩淵宏子, 「セクシュアリティの政治学への挑戦」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編, 『靑鞆を読む』, 學藝書林, 1998, 305쪽.

5. 위의 글, 306쪽.

아볼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시의성을 담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들 3가지 논쟁 중 특히 낙태와 폐창 논쟁을 중심으로 생명과 여성의 신체, 그리고 자기결정권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겠다. 특히 이토 노에와 히라쓰카 라오초에게서 각기 한계로 지적받아온 생명주의와 우생학적 시각에 관해 동시대적 의미와 의의를 재고하고자 한다. 이것은 페미니즘이 전개되는 양상 속에서 과학적 사유가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과의 타당성도 살펴보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sup>6</sup>

## II. 다이쇼기 근대화된 여성의 신체관: 생명주의의 영향

낙태 논쟁은 낙태죄로 체포된 여성이 법정에서 재판관과 논쟁한 일을 남편에게 보내는 서간체로 쓰인 소설을 통해 낙태를 긍정한 하라다 사쓰키(原田臯月)의 「옥중의 여자로부터 남자에게」부터 시작된다.<sup>7</sup> 서구에서도 낙태는 고사하고 피임의 정당성조차 인정되지 않던 시대였다. 일본에서도 낙태죄가 제정되었던 탓에 이글로 인해 『靑鞆』은 ‘풍속괴란(風俗壞亂)’이라는 명목으로 발매금지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靑鞆』 내부에서도 이토 노에, 야마다 와카(山田わか), 히라쓰카 라이초가 각기 다른 의견을 피력하였다.<sup>8</sup>

먼저 당시의 일본 당국은 낙태 문제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해 보자. 에도시대 빈곤으로 인한 낙태나 마비키(間引き, 생활고를 이유로 한 영아살해)

6. 『靑鞆』에 관한 한국 내의 연구는 주로 『靑鞆』 지상에 소개된 문학작품 분석을 통해 모성담론, 근대여성상, 가부장 시스템 등에 관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으로는 김화영 「『靑鞆』에 나타난 '이상적인 부인」(『동북아시아문화학회』11집, 2013), 박유미 「『세이토(靑鞆)』의 '모성'담론」(『대한일어일문학회』39집, 2008), 박유미, 「『세이토(靑鞆)』로 본 근대여성문화」(『한국일본문화학회』63집, 2014), 손지연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과 『세이토』」(『比較文化研究』27집, 2012), 이지숙 「1910년대 일본 신여성문학-『세이토』를 중심으로」(『인문학연구』34집, 2007) 등이 있다.

7. 原田臯月, 「獄中の女より男に」, 『靑鞆』第5巻第6号, 1915년 6월.

8. 『靑鞆』의 외부에서도 마쓰모토 고로(松本梧郎), 「『靑鞆』の発売禁止」, 『第三帝國』第34号, 1915년 6월 15일; 「子供と生活難」, 『第三帝國』第47号, 1915년 7월 25일)나 사카이 도시히코(堺利彦, 「産む自由と産まぬ自由」, 『世界人』, 1916년 2月号)와 같은 논자들이 하라다 사쓰키를 지지하는 견해를 보였다.

를 산파가 돕던 것은 농촌의 일반적 풍습이었다. 하지만, 조산(助産)의 근대화란 출산을 공동체적 질서에서 국가관리로 이행을 뜻하게 되면서 그때까지의 관행은 1869년에 금지된다.<sup>9</sup> '낙태죄' 제정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낙태가 범죄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형벌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프랑스 형법을 모방한 1880년 형법(1882년 실시)부터로, 낙태한 여성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징역"에 낙태를 시술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러일전쟁 이후인 1907년에는 병력확보를 위한 인구증가를 목표로 독일 형법을 모방하여 낙태죄는 더욱 엄격해진다.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고 낙태를 시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부녀를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개정되었다. 이처럼 낙태죄는 낙태를 시술한 의사나 산파, 당사자인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지만 그 원인을 제공한 남성은 면제되는 불합리한 것이었다. 혼외 출산을 한 여성은 '사생아'의 모친으로 양육의 책임은 물론 사회적 오명을 한 몸에 뒤집어써야만 했기에 강간이나 매춘 등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위험한 비합법적 낙태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여성은 무수히 많았다고 한다.<sup>10</sup>

피임에 관해서도 낙태죄와 마찬가지로 억압적이었다고 여겨져 왔지만, 피임 행위 자체가 금지의 대상이 된 것은 전시 하의 극히 짧은 기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출판법이나 매약법 등에서 구체적인 피임방법을 선전 광고하는 것을 외설적이라 보고 단속의 대상으로 삼았다. 1869년 5월 출판조례를 효시로 출판물 단속을 개시해 1893년 공포된 출판법 제19조에 따라 피임방법을 구체적으로 게재한 출판물은 사라진다. 또한, 1914년 3월 공포된 매약법에서 피임약을 공공연히 선전 광고하여 파는 것이 금지되었다. 이러한 규제는 성을 감추어두

9. 光田京子, 「近代の母性観の受容と変容—教育する母親から良妻賢母へ—」, 脇田晴子編, 『母性を問う—歴史の変遷』下, 1985, 100~129쪽.

10. 후지메 유키, 『성의 역사』, 김경자·윤경원 옮김, 삼인, 2004, 123~151쪽. 낙태죄의 성립에 대해서는 부국강병을 지향한 메이지 정부가 서구 근대국가의 방법을 모방하여 문명개화의 이름으로 출생증강정책으로서 국민의 생식행동을 관리·통제했다는 후지메의 주장으로 대표되는 통설과 출생증강정책이 아닌 유교 윤리의 강요로 전개되었다고 보는 이설(石崎昇子, 「日本の墮胎罪の成立」, 『歴史評論』제 571호, 1997년 11월, 53~70쪽)도 있다.

어야만 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가정책에 따른 것으로 성과학이 성문화의 기초가 되는 것을 꺼리며 성을 공공연히 말하는 것은 부도덕한 것으로 보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sup>11</sup>

논쟁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다. 발단이 된 하라다 사쓰키의 소설에서 낙태를 한 여성은 “인명을 함부로 해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인류의 멸망도 인도의 파괴도 생각하지 않는 허무당(虛無黨) 이상의 범죄”라는 재판관의 힐문에, 부모가 될 능력이 없는데도 피임을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한다. 그러면서 “모태의 생명 중 하나인 동안에 어머니가 태아의 행복이라고 믿는 신념대로 이를 좌우하는 것은 어머니의 권내에서 권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당연히 태아도 죽을 운명이며 더구나 어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태아를 죽이는 것은 공공연히 허용되는 일인 것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때문에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아이를 버렸던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태아는 “자신의 팔뚝 하나”와 같다는 태아를 모체 부속된 생명이라는 근거로 반박한다. 이는 이전에 농촌에서 횡횡했던 낙태나 마비키에 익숙한 여성의 관념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여성이 출산을 자신의 의사로 결정한다는 동시대의 미국 여성운동의 ‘자주적 모성’ 주장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reproductive rights에 상응하는 주장이기도 하다. 하라다는 이처럼 낙태론을 긍정하며 여성에 의한 재생산의 자기관리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이에 대해 이토 노에는 피임은 허용할 수 있으나 낙태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자연을 모욕한 것”,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경시한 행위”라고 부인한다. 왜냐하면, 사쓰키의 주장대로 배 속의 아이는 모체의 일부가 아니라, “미래를 가진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이라며 태아를 생명권의 주체, 나아가 생명주의적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될 자격”을 “미성숙한 사람이 아닌 한 혹은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무능력자, 백치, 광인 등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갖는 사람 이외”라면 자격이 있다며 빈곤을 이유로 한 낙태를

11. 石崎昇子, 「近代日本の産児調節と国家政策」, 『総合女性史研究』第15号, 1998년 3월, 15~32쪽.

부정하고 있다.<sup>12</sup> 이토 노에의 논의는 마치 자연에 의해 재생산의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상을 주며 표현 중에는 우생사상의 영향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이토의 이러한 견해는 여성주의적 입장의 불철저함이 그 원인으로 지적받기도 한다.

『靑鞆』 사원 중에서 “낙태도 피임도 동일하게 큰 죄악”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아마다 와카인데, 그는 “개인적 행복 및 국가의 영광을 파괴하는 큰 부덕”이라며 국가주의적 견지에서 부정론을 전개했다.<sup>13</sup>

히라쓰카 라이초도 논쟁에 참여하는데,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성’으로서의 생활 사이의 쟁투에 대해(노에 님께)」에서 엘렌 케이(Ellen Key)가 말하는 ‘soul life와 family life’ 사이의 쟁투, 즉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종(種)으로서의 생활이 상호 모순 충돌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를 묻는다. 그리고 “자신의 예술 생활을 위해서나 어떤 과학적인 연구 또는 사회적 사업을 위하여” 피임이나 낙태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히라쓰카는 이토 노에의 논리를 “감정론이나 상식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며 비판하면서도 거기에 “본능적인 어머니로서의 아이에 대한 격렬한 애정”을 찾아내어 자신도 “만약 아이를 거부하려 한다면 사랑의 생활 전체를 반드시 거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서 “낙태라는 생각들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덧붙여 일본의 법률이 낙태를 무조건 범죄로 삼는다면 그와 동시에 어머니와 자녀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14</sup> 모자 보호라는 이러한 관점은 1918년부터 1919년에 걸쳐 전개되는 모성보호 논쟁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어서, 히라쓰카는 「피임의 가부를 논한다」에서 낙태가 아닌 피임에 관해 논의를 펼친다. 여기서 그는 일, 다산의 부담, 빈곤, 유전병 등을 근거로 피임의 정당성을 논한다. 그리고 우생사상적 관점에서 ‘생식’이 중대한 ‘사회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알코올 중독자나 결핵 환자, 간질 병자, 매독

12. 伊藤野枝, 「私信-野上弥生様へ」, 『靑鞆』第5巻第6号, 1915년 6월.

13. 山田わか, 「墮胎に就て—松本悟朗氏の『靑鞆の発売禁止に就て』を読んで」, 『靑鞆』第5巻第8号, 1915년 9월.

14. 平塚らいてう, 「『個人』としての生活と『性』としての生活との間の争闘に就いて(野枝さんに)」, 『靑鞆』第5巻第8号, 1915년 9월.

환자, 정신병자 등의 생식을 “용서하기 어려운 죄악”이라 규정하고 “국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제안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임의 장려·전파에 대해 기우, 혹은 의문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성적 생활의 진정한 도덕적 의의는 개인의 행복과 종족의 이익이 일치 조화되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이상에 비추어 보자면 피임 장려에는 모순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임법의 장려가 부인을 남성의 “향락 도구”로 취급되도록 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한다. 게다가 이러한 폐단은 제한 없는 출산으로 인한 고통, 손실보다 크다고 한다. 따라서 “고귀한 연애로 맺어져 아이에 대해 언제나 깊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남녀의 자제력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의 산아 수를 적당히 제한하도록 만든다”라면서 금욕을 통한 피임의 제창으로 결론 맺게 된다.<sup>15</sup> 히라쓰카는 ‘개인’으로서의 생활과 ‘중’으로서의 생활의 투쟁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으며,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필요에 따라 낙태도 용인하는 입장이라 하겠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여성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었고, 그렇기에 질이 낮은 생명의 재생산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생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그 방식에 있어서도 ‘국가에 의한 재생산의 관리’를 요청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에 관해서 당시 페미니스트들이 태아를 ‘몸속에 일시 기생하는 것’, ‘자유를 빼앗아간’ ‘증오스러운 적’처럼 묘사하여 ‘아이’ 자체에 위화감을 가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sup>16</sup> 『靑鞆』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이와노 기요나 히라쓰카 라이초, 이토 노에 등을 아울러서 그들이 모자일체와 모성애를 부정하고 아이에 대한 위화감을 공통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진보적 페미니스트들이 ‘낙태 찬성’의 입장과 이러한 견해를 주장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자아’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위태로운 감정이었는지 그 ‘불안감’에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해석이 갖는 정당성은 차치하고서 우선적으로 『靑鞆』에 가담한 모든 여성을 하나의 단일한 사상을 가진 페미니즘 그룹으로 평가한 점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문제가 있

15. 平塚らいてう, 「避妊の可否を論ず」, 『日本評論』第3巻第9号, 1917년 9월.

16. 宮野真生子, 「母性と幸福」, 『社会と倫理』第31号, 2016, 19~33쪽.



다. 오히려 하라다 사쓰키의 문제 제기에 관해 국가가 관리하던 생식의 문제를 개인 선택의 문제로 바라보기를 주장하며 여성이 출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할 것을 제기한 획기적인 것으로 보는 평가가 보다 일반적이라 하겠다.<sup>17</sup> 또한, 논쟁에 참여한 대부분 논자가 빈곤을 이유로 낙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반면, 히라쓰카 라이초는 여성의 사회 진출과 자기실현을 낙태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점으로 들고서 낙태와 피임을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논할 필요성을 주장한 점에서 그의 근대성이 빛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sup>18</sup> 한편 히라쓰카의 우생사상적 관점에 대해서도 차별적인 선민사상이며 국가의 성관리시스템으로 수렴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sup>19</sup>

그런데 야마다 와카의 국가주의는 논외로 치더라도 노에의 생명주의는 이후 폐창 논쟁에서의 발언과 더불어 남근중심주의적인 당시의 아나키즘의 영향이 보인다고는 비판이 있다.<sup>20</sup> 히라쓰카의 우생사상에 대해서는 폐창논쟁에서 다시 언급하기로 하고 다이쇼기에 널리 확산되기 시작한 육아와 출산에 관한 맥락을 살펴보고 이토 노에의 생명주의적 관점에 주목해 보겠다.

다이쇼기는 부인문제, 산아조절론, 성교육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학과 성교육에 관한 전문학술잡지의 범위를 넘어 각종 종합잡지, 여성잡지에서 연애와 성에 관한 논조가 훨씬 개방적으로 전개되었다. 도시 중산층 여성들은 육아나 출산에 관한 계몽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모성’ 담론도 널리 확산되었다. 그중에서도 시모다 지로(下田次郎)가 쓴 『태교(胎教)』(1913)라는 서적이 가장 많이 읽혔다. 이 책은 1928년까지 15년간 65쇄를 찍어냈고, 같은 저자의 책으로 『어머니와 아이(母と子)』(1916) 역시 1930년까지 23쇄를 찍었다. 전자는 임신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이고, 이러한 시점을 생물학과 진화론의 이론을 이용해 현모양처 교육의 필요성을 ‘모성’, ‘모심’의 입장에서 강하게 주장한 것이 후자이다. 다시 말해 임신에 대한 과학적 시점이 모성 담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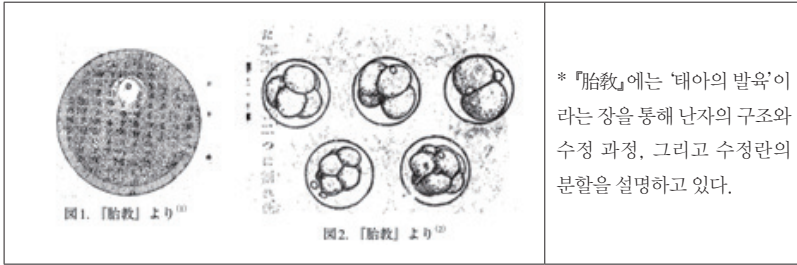
17. 오고시 아이코, 『근대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전성곤 옮김, 소명출판, 2009, 105~145쪽.

18. 石崎昇子, 「生殖の自由と産児調節運動」, 『歴史評論』第503号, 1992年3月, 92~107쪽; 후지메 유키, 앞의 책.

19. 牟田和恵, 앞의 글; 오고시 아이코, 앞의 책, 105~145쪽.

20. 오고시 아이코, 앞의 책, 118~122쪽.

견인한 것으로 ‘젠더화된 과학’ 혹은 젠더화된 의미 형성에 미친 과학의 영향이 다이쇼기 일본에서 어떻게 작용했는지 가늠하게 해준다. 앞서 소개한 하라다 사쓰키의 서간체 소설 속 주인공인 낙태죄로 체포된 여성 또한 『태교』를 읽었다는 언급이 있다.



〈그림1〉 『태교』 ‘태아의 발육’

모성 담론과 관련해 위와 같은 서적의 영향을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 여성들이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상당히 과학적 지식을 통해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학적 지식이 당시 ‘낙태’를 둘러싼 일본 페미니스트의 입장을 증명하는 형태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sup>21</sup> 즉 당시 페미니스트는 수정란은 아직 인간의 신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보고 생명이 아닌 ‘모체의 부속물’로 파악하고 자신의 몸과 태아를 분리해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본 근대 여성이 수정란과 태아를 자신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3인칭화’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여성의 신체가 신불(神佛)의 가호를 입은 존재를 잉태하는 ‘빌린 배(借り腹)’에 지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신체관으로부터 상당히 발전한 시각이기 때문이다. 즉 에도시기에서부터 메이지기에 농촌에서 횡횡했던 산파에 의한 낙태나 마비키와는 다른

21. 折井美耶子編, 『論争シリーズ5 資料 生と愛をめぐる論争』, ドメス出版, 1991, 135쪽. 주인공 여성과 재판관의 대화 내용 속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재판관이 낙태를 ‘인류의 멸망과 인도(人類)의 파괴도 생각지 않는 허무당 이상의 범죄’라며 여성의 죄를 꾸짖자 여성은 이렇게 대답한다. “여자는 매월 수많은 난세포를 버리고 있습니다. 수태했다고 해서 아직 생명이라고도 인격이라고도 느낄 수 없습니다. 모체의 작은 부속물로부터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본능적인 사랑따위는 좀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팔 하나를 잘라냈다고 처벌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직 들어 본적 없습니다.”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한편 이토 노에는 히라쓰카 라이초로부터 1914년 하반기부터 『靑鞆』의 편집을 이어받아 '무규칙, 무방침'이라는 입장으로 『靑鞆』지상을 채워갔다. 그로 인해 부인의 자립, 정조, 낙태, 공창 문제 등이 잇달아 제기되었다. 이토 노에 자신은 『靑鞆』에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 엠마 골드만(Emma Goldman)의 『부인해방의 비극』을 번역 게재하였고, 특히 20세기 초 뉴욕을 거점으로 노동자와 여성을 위해 노동운동과 산아제한운동 등 아나키즘 운동을 전개한 여성 리더 엠마 골드만과 그녀가 주재하는 잡지 *Mother Earth*의 사상에 공명하였다. 그러면서 엠마 골드만의 『부인해방의 비극』에 의거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엘렌 케이의 연애지상주의에 대해 여성을 가정에 몰아넣으려는 모성주의라고 비판한다.

이토 노에의 낙태 반대론을 돌아가 보자. 상술한 바와 같이 이토가 낙태에 대해 부자연스러운 것이며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라 반대한다는 입장은 어떠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날지 시들어 갈지는 미지의 문제이죠. 그러나 생명이 싹튼 것은 사실입니다. 이 하나의 생명이 어떤 운명을 타고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에요”라고 했을 때, 이토의 사상의 근거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 신불사상이나 인습, 혹은 기독교적 윤리관이 아니었다. 히라쓰카가 “당신은 지금 '생명'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요”라며 지적했듯이 이토 노에는 확실히 '생명'이라는 관점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토 노에는 배아시기부터를 '생명'이라 생각했고 아이의 생명에 '인격'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고자 했다.<sup>22</sup>

하지만 히라쓰카가 이토에 대해 '본능적 모성'이라고 말한 것과는 달리 이토의 사유에는 휴머니즘을 고려하지 않는 냉혹한 자연철학에 가까운 면이 있다.<sup>23</sup> 이토의 논리에서 태어날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라나며 자라날 힘이 없다면 태어나지도 못할 것이라며 자연에 모든 것을 맡기는 듯한 구절이다. 생명에

22. 山本ひとみ, 「伊藤野枝研究序説 —その生涯における『靑鞆』と恋愛—」, 『比治山女子短期大学国文学会 紀要論文』3号, 1971, 46~48쪽.

23. 加野彩子, 앞의 글, 199쪽.

대한 긍정과 더불어 냉혹함이 보이는 이러한 측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논리의 단서는 베르그손 『창조적 진화』(1907)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베르그손에 따르면 생명의 역동적인 힘은 인간 개체들의 형편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인간 종 자체를 궁극적인 종착지로 목표하지도 않는다. 자연 안에서는 개체를 초월해서 흐르는 잠재적인 생명의 힘이 물질의 표면을 뚫고 현실화하는 운동을 통해 끊임없이 다양한 생명종들이 생성하고 변이해나갈 뿐이다.<sup>24</sup> 배아의 생명에조차 존중을 표명하면서도 일견 무심한 듯한 태도는 이처럼 개체초월적으로 면면히 흐르는 생명의 힘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일본의 다이쇼기, 특히 1910~1916년은 “베르그손 대유행”이라고도 할 정도로 일본의 철학계와 논단, 문단에서 베르그손 관련 논문, 해설서, 저작, 번역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던 시점이었다.<sup>25</sup> 이토 노에는 베르그손 유행을 근대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받아들였다고 보인다. 이토는 크로포트킨의 『상호부조론』, 파브르의 『곤충기』 등 근대생물학 관련된 저서를 오스기 사카에(大杉栄)와 공역하면서, 다윈(Charles Darwin)과 윌리스(Alfred Wallace), 헤켈(Ernst Haeckel) 등의 진화사상을 파악하고 『창조적 진화』를 습득하기 위한 기초를 다졌다.<sup>26</sup> 그러면서 인간 개체를 초월한, 아니 우주를 관통하는 생명의 흐름에 대한 비전 속에서 생명주의적 논의를 펼쳤던 것이다.

### III. 폐창 논쟁과 여성운동: 우생학의 영향과 섹슈얼리티 정치학에의 도전

다음으로 폐창 논쟁을 살펴보자. 폐창 논쟁은 이토 노에가 「거만형량하고 불철저한 일본 부인의 공공사업에 관해」에서 애국부인회를 비롯한 중상류 부인

24. 김재희, 「베르그손에서 창조적 정서와 열린 사회」, 『철학사상』 44권, 2012, 197~226쪽.

25. 宮山昌治, 「大正期におけるベルクソン哲学の受容」, 『人文』 4号, 学習院大学, 2005, 83쪽.

26. 이토 노에는 1916년 경부터 오스기 사카에에게 경도되면서 아나키즘을 심화시켜 간다. 오스기와 다른 여성들과 얽힌 4각 연애는 당시 마스크를 떠들썩하게 만든 스캔들로 상술한 오고시 아이코의 비판은 이러한 스캔들을 사상적 측면에서 과도하게 개입시킨 경향이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스기 사카에의 생명주의적 아나키즘에 관해서는 김병진 「20세기 전환기 자유의 각성과 생명의식 - 율령의 사상가 오스기 사카에」(『일본문화연구』 62집, 2017, 27~48쪽)을 참조.

단체의 사업과 활동의 기만성을 지적하면서 교풍회의 공창폐지운동을 비판한 것에서 시작되었다.<sup>27</sup> 폐창운동에 관한 발언이 아오야마 기쿠에이(青山菊榮)의 비판을 불러왔고 『靑鞆』 지상에서 양자 간에 '폐창논쟁'이 전개되면서 히라쓰카 라이초도 다른 매체를 통해 견해를 피력했다.

근대 일본의 공창제도는 전근대의 공창제도 연장선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 서구식 공창제도를 도입해 새롭게 재편된 것이었다. 1872년에 창기해방령에 의해 인신매매 금지를 천명했지만, 그 직후에 자유의사에 따른 영업이라면 용인한다는 명목으로 가시자시키(貸座敷)·창기규칙(娼妓規則)을 만들어 감찰을 공포하고, 매월 대실에는 5엔, 창기에게는 2엔의 감찰료를 징수하도록 정했다. 1900년, 내무성령 제44호 창기단속규칙에 따라 자유폐업 규정이 명문화되면서 전차금(前借金) 반환 의무가 인정되자 빚을 갚기 위한 혹은 생계유지를 위한 자유의사에 따른 매춘이라는 환상을 조성한다. 한편으로는 국가 관리 외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매매를 비합법화하여 금지함으로써 여성의 성매매 권리를 독점하였다. 이처럼 근대 일본 공창제도는 국가수탈체제로서 기능하여 일본 하층계급의 여성만이 아니라 식민지 여성들로도 저변을 확대해 갔다.<sup>28</sup>

이러한 상황에서 중상류계급을 기반으로 한 '일본기독교부인교풍회'(이하 교풍회), 기독교청년회, 구세군은 폐창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들 폐창운동은 천황 전제, 부국강병, 탈아입구라는 틀 안에서 전개되었기에 제국주의 논리에 친화적이면서 창부와 그 공급기반인 하층사회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유지되었다. 폐창운동의 주목적은 매춘 관련자의 공적 허용을 폐하고 범죄자화 함으로써 국가의 체면을 정비하는 동시에 매춘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매춘부를 천시하는 사회윤리를 보급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의 매춘의 근본 원인이 국내 계급지배와 아시아 침략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했다.<sup>29</sup>

27. 伊藤野枝, 「傲慢狹量にして不徹底なる日本婦人の公共事業に就て」, 『靑鞆』第5卷第11号, 1915년 12월.

28. 후지메 유키, 앞의 책, 91~107쪽.

29. 위의 책, 107~122쪽.

이토 노에가 폐창운동에 반발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매춘부 배척 운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토 노에의 교풍회 비판은 먼저 예창기를 ‘천업부’라고 부르고 있는 점에서 “나는 그것만으로 이미 그녀들의 오만함을 또는 천박함을 충분히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라고 단정하고, 공창제도를 외국에 대한 수치라고 하는 교풍회의 주장에 대해 “공창제도가 부끄럽고 사창제도가 왜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국치(國恥)주의에 입각한 매춘문제 대처의 기만성을 비판한다. 그리고 “여성이 생활난 때문에 ‘천업부’로 전락한다. 그것을 그녀들에게 말하면 언제나 생각하는 방법이 부족하다든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창부의 출신 기반인 하층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천시를 지적했다. 동시에 “만약 그녀들의 말한 대로 화류계의 여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 천업이라고 해도 그러한 일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말하듯이 역시 남자 본연의 요구와 긴 역사에 그 뿌리를 단단히 박고 있다”며 교풍회 등의 계급적 한계성을 지적하면서도 공창제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아오야마 기쿠에이의 비판을 사게 된다.

아오야마 기쿠에이는 사창에 비해 공창의 비참함을 육체적 구속, 식사의 실태, 선차금제도 등을 예로 들어 지적하고, 무지와 가난, 남성의 방자함으로 인한 “노에매매 겸 고리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폐지해야 한다고 공창제 폐지운동을 옹호하였다. 또한 노에의 “남자 본연의 요구”라는 인식에 대해 매음제도는 “부자연스러운 사회제도”로 “권력자들이 만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를 자연스러운 불가항력인양 인정하는 것은 무지한 비굴한 노예사상”이라고 비판하고 외국을 향한 허세로써 폐창이라도 상관없으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0</sup>

아오야마의 비판을 받은 이토 노에는 반론과 재반론을 이어갔다. 노에는 기쿠에이의 공창 폐지에 대한 생각을 정당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세 가지의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성적 금욕은 신체와 성격을 비뚤어지게 하므로 결혼이 어려운 사회에서 매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남자의 본연의 요구란 주장을 물

30. 青山菊榮, 「日本婦人の社会事業に就て伊藤野枝氏に与ふ」, 『靑鞆』第6卷第1号, 1916년 1월.

리칠 수 없다며 폐창론자들의 금욕주의에 대항했다. 둘째, 폐창은 매춘업 종사자들의 살길을 찾은 다음에 해야만 한다. 셋째는 공창이 폐지되면 사창도 줄어들다는 것은 긍정하기 힘들다고 말하였다.<sup>31</sup>

아오야마도 이토의 비판에 대한 반대론을 펼치며 사창의 증가는 인구증가, 경제적 불안, 부인의 저렴한 노동임금 탓이기에 공창제도가 사창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 매음 근절을 위해 생활난 완화, 성의 해방, 교육의 혁신과 보급을 주창하였다.<sup>32</sup> 그리고 매음제도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더하여 앞선 논의에서 옹호했던 교풍회 등의 폐창운동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선다. 우선 매음제도의 바탕은 사유재산제도에 따른 부의 격차와 부인의 굴종으로 간파되었다. 다음으로 매음의 수요와 공급의 관계는 '남성 중심 사회'의 성의 이중규범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뒤이어 매음은 현 사회 조직의 결함에 따른 필연적 산물이기에 단속을 위해서는 매춘부를 고용하는 자본가를 억제해 매춘부의 생활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조란 남성에 의한 여자 정복의 상징"이라며 부인의 지위가 낮을수록 정조가 더 요란하고 매음이 성행하는 것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예로 들었다. 이를 토대로 장래의 남녀관계에 필요한 것은 "공허한 '정조'의 이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각으로 출발한 자제적 관념"이며, 매음의 근절은 사회변혁에 의한 "경제혁명과 부인해방"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의 확청(廓淸)은 일부 인사들의 주장처럼 공창폐지와 사창압박이나 남자 간통 제재법 제정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폐창운동을 비판하게 된다.<sup>33</sup>

히라쓰카 라이초도 논쟁에 참여해 이토 노예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친다. 교풍회 사업에는 부인운동을 관통하는 "어떤 공통된 정신", 즉 이론이 결여되어 있다고 단정하였다. 결혼이 연애적 관계가 아닌 경제적 관계인 한 아내는 매음부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일부일처제

31. 伊藤野枝, 「青山菊枝様へ」, 『青鞵』第6巻第1号, 1916년 1월; 「再び青山氏へ」, 『青鞵』第6巻第2号, 1916년 2월, 중간호.

32. 青山菊榮, 「更に論旨を明かにす」, 『青鞵』第6巻第2号, 1916년 2월.

33. 青山菊榮, 「現代生活と売春婦」, 『新社会』, 1916년 7월호.

청원은 무의미하며, 그보다 부인에게 실력을 부여해 연애관계를 부부관계로 만들 것을 제창하였다. 공창폐지운동은 교풍회처럼 도덕문제나 국가문제 때문이 아니라 인권문제로 찬성이지만 공창이 폐지되더라도 사창의 존재가 있는 한 매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정조관념을 선전하는 대신 “성적 도덕으로서의 높은 연애 이상”을 설파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sup>34</sup>

이상의 폐창 논쟁에 관해서는 이토 노에에 대해서는 남근주의의 아나키즘적 자유성애의 함정에 빠져들어 성욕을 긍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매춘제도를 긍정하는 궤변이라는 지적과 히라쓰카 라이초에 관해서도 이상화된 연애에 기초한 근대적 일부일처를 옹호하여 여성의 헌신을 탐닉하기 위한 장치임을 무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그 한계성이 지적되는 반면, 아오야마 기쿠에에 관해서는 공창제도가 국가의 성관리시스템의 일환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혁 없이는 여성의 성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sup>35</sup> 이와 같은 주류 평가에 대해 이토와 히라쓰카의 논의가 폐창운동이 가진 위선을 지적했다고 평하고 아오야마의 주장에 별다른 새로운 내용이 없이 교풍회 등의 기성세력에게 주도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sup>36</sup> 한편 기쿠에이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공창제도가 국가의 성관리시스템의 일환이라는 점과 이를 지적하지 않은 채 여성의 성도덕을 논하는 것의 불모성을 지적하고 사회의 변혁 없이는 여성의 성적 해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높이 평가한다.

폐창논쟁에서는 이토 노에와 히라쓰카 라이초의 폐창운동 자체에 대한 비판은 예리했다고 하겠다. 다만 폐창 문제와 관련해서 유효한 시각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던 듯하다. 한편 아오야마 기쿠에이가 국가에 의한 성적 수탈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후의 페미니즘 운동에 중요한 포석을 마련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다만 이토 노에에 대한 엄격한 지적은 연구사 내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성과 생식에 관한 엄격성의 반영이 아닐까 생각된다. 당시 서구 페미니즘 운동사

34. 平塚らいてう, 「矢島樞子氏と婦人矯風会の事業を論ず」, 『新小説』, 1917년 6월호.

35. 대표적으로 오고시 아이코가 이러한 시각을 보여준다.

36. 후지메 유키, 앞의 책 참조.



에서도 성과 생식에 대한 주장은 제1차 페미니즘에서 소수였을 뿐이었다. 루이스 모건(Lewis Morgan)의 『고대사회』(1877)와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1884)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당대의 섹슈얼리티 정치학에 대한 돌파구로 생식의 자유를 요구한 이토의 주장과 삶의 족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한편 히라쓰카 라이초의 폐창운동에 관한 사고에도 우생사상적 관점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앞서 낙태논쟁에서 히라쓰카는 자각적인 존재에 의한 출산은 국가 이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성의 자기관리 주장을 강화하는 반면 무자각적인 존재나 병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그들의 자기결정권은 외면하는 한계성을 보였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충분히 비판할 부분이다. 그런데 보다 철저한 비판을 위해서도 히라쓰카 라이초의 이러한 우생학적 사유의 수용이 필연적이었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당시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래로 점차 여성의 예측적 지위가 제도화되고 생식에 관해서도 국가가 관여해 가던 상황이었다. 엘렌 케이의 모성주의에 감화 받은 히라쓰카는 이와 같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고자 한다. 즉, 모성과 생식에 공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해방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sup>37</sup> 당시의 우생사상은 1920년대부터 30년대에 걸쳐 서양에서 일세를 풍미한 최첨단의 사조이며, 사회적으로 최선의 인간을 증식시키려는 시도는 보수파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자나 페미니스트들에게서조차 지지를 받았다.<sup>38</sup> 미국과 영국에서 산아제한 운동을 추진한 마가릿 생어(Margaret Sanger)와 마리 스톱스(Marie Stopes)는 운동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우생사상을 지지하며, ‘인간쓰레기’의 번식을 억제해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종을 요구하는 사상을 내면화하였지만 이들의 주장도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특별히 극단적이거나 특이했던 것은 아니었다.<sup>39</sup> 일본에서도 1910년대부터 나

37. 石崎昇子, 앞의 글.

38. 荻野美穂, 「フェミニズムと生物学: ヴィクトリア時代の性差論」, 『人間文化研究科年報』4号, 1988, 122~134쪽.

39. 후지메 유키, 앞의 책, 24~25쪽.

가이 히소무(永井潜), 운노 고토쿠(海野幸徳) 등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해 1920년대에 들어서는 산아제한 운동 관계자들을 끌어들여 한층 더 유행을 보게 된다. 라이초의 수용은 일본에서 비교적 빠른 시기의 것으로 새로운 과학의 한 분야이자 세계적으로 위신을 구가하던 사상이라는 점에서였다. 낙태 논쟁에서 라이초의 주장이 우생학이라는 시대적 유행 사상을 이용한 일탈적 측면도 있었지만, 성의 이중규범 타개의 방향으로 수정해 간 것에 주목해 보자면 그의 최대 관심사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에 있고” 기본적으로는 성과 생식에 있어서 자기결정권의 문제였고 성의 이중규범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sup>40</sup>

성의 이중규범 타파를 지향하던 히라쓰카 라이초는 우생사상을 통해 국가의 제재로 성도덕을 엄격히 통제하면 대다수 여성의 삶의 방편이었던 결혼이라는 사적 영역에서의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보인다. 그는 『靑鞆』에 이어 1920년부터 신부인협회에서 활동하면서 <화류병 남자의 결혼 제한에 관한 청원서>, <화류병자에 대한 결혼 제한 및 이혼청구에 관한 청원서>를 귀족원과 중의원 양쪽에 제출한다. 제2장에서 살펴봤던 「피임 여부를 논하다」에서 결혼 제한으로 꼽은 알코올 중독자나 결핵 환자, 간질 병자, 매독 환자, 정신 질환자 등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화류병자로 제한한 점이 눈에 띈다. 이 청원서에 관해서는 “부인을 대상으로 행해질 수 있는 남자의 방종한 성적 생활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 거기에 도덕적 의의도 아울러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다.<sup>41</sup>

여기서 보여주듯이 여성에게만 정조의 준수를 요구하는 성의 이중규범을 개편하기 위해 남성에게 여성과 같은 수준의 순결을 요구했던 것이다. 성병의 배후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매춘인 공창제도가 있으며, 성병에 걸린 남성의 결혼

40. 우생학과 '가정의 융화 및 육아 상의 관련성'은 진전에 일본에서 전개되었던 '혼혈론'을 보면 더욱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박이진은 혼혈이 생물학적 이유보다 사회학적 견지에서 판단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우생학은 진진뿐 아니라 진후에 더욱 강한 사회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며 일본 여성 및 결혼관, 가족관에 영향을 미쳤다. 박이진, 「진후 일본의 혼혈 담론 — GHQ 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103권, 2018, 235~267쪽.

41. 平塚らいてう, 「花柳病男子結婚制限法制定に関する請願運動」, 『女性同盟』創刊号, 1920년 10월.

제한이란 국가의 성 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라고는 볼 수 없을듯하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오히려 국가에게 명백히 도전하는 감마저 있었다. 생식을 통한 선천성 매독 아동의 출산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라이초가 피임을 논하면서 남성의 성적 방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욕을 제창한 것도 같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남성이 임신에 대한 걱정 없이 섹스를 요구하는 구실을 주는 것은 여성의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빼앗고 여성을 성병의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남성의 성욕의 도구로 전락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라이초의 금욕 개념에는 단순히 성교를 참자는 것 이상으로 높은 도덕성과 아내에 대한 남편의 배려라는 적극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IV. 나가는 말

『靑鞵』이 활동한 것은 1911년부터 1916년까지로 6년간의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직업 활동을 포함해 여성들의 생활이 크게 변화해 가던 시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靑鞵』에 모인 여성들의 주장과 행동은 신여성으로서의 자각을 통해 현실의 여성해방에 어떻게 파고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여성들의 다양한 움직임은 개인주의와 사회제도 확립의 요구에서 시작한 초기 다이쇼테모크라시 운동의 진수를 생생한 논리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일본은 근대화 이후 가부장제의 논리를 강화시키며 여성을 아내와 창부로 분단하고서 여공 등 직업을 가진 여성들을 비가시화해 갔다. 『靑鞵』에 모인 여성 지식인들도 이러한 전제를 내면화하고 하층계급 여성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한계점이 있다고 해도 낙태 논쟁에서는 이른바 제도 내 여성의 성과 생식에서의 자기결정권에, 폐창 논쟁에서는 제도 밖의 여성의 성을 핵으로 한 인권이 조명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통해 젠더 이데올로기에 속박된 일련의 정치적 문제임을 처음으로 가시화한 획기적인 시도였다는 점은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또한 히라쓰카 라이초의 우생학적 입장과 이토 노에의 생명주의 경향의 경

우처럼 당시 과학적 사유가 페미니즘 운동의 방향에 개입한 정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날 이들의 한계성으로 지적 받고 있는 이러한 측면은 당시 지적·사회적 문맥에서는 과학성의 보증과 사상적 보편성을 확보함으로써 여성운동의 외연 확대를 꾀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靑鞵』의 담론이 혼인제도 정화를 중심화해 나간 데서 한계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성관계는 아내건 매음부건 성의 도구화이며 여성 인권문제에 관여한다는 주장은 국가에 의해 직접 수탈당했던 동시대의 창부들의 어둠을 조명해 준 것도 분명하다. 또한,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매춘 부정론의 이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상기하면 문제는 그다지 단순하지 않다. 한편 생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문제는 현대의 reproductive rights와 연관되어 있지만, 성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주장은 오늘날의 매춘 긍정론의 논거로 작용하여 혼미화·혼중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靑鞵』을 무대로 펼쳐진 논쟁은 곧 오늘날 섹슈얼리티 문제의 연원이며, 섹슈얼리티의 정치학 해체를 지향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반복적으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靑鞆』復刻版, 不二出版, 1983.
- 김병진, 「20세기 전환기 자유의 각성과 생명의식 - 월경의 사상가 오스기 사카에」, 『일본문화연구』62집, 2017, 27~48쪽.
- 김재희, 「베르그손에서 창조적 정서와 열린 사회」, 『철학사상』44권, 2012, 197~226쪽.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박유미, 「『세이토(靑鞆)』로 본 근대여성문화」, 『한국일본문화학회』63집, 2014, 223~241쪽.
- \_\_\_\_\_, 「『세이토(靑鞆)』의 '모성'담론」, 『대한일어일문학회』39집, 2008, 177~193쪽.
- 박이진, 「전후 일본의 혼혈 담론 - GHQ 점령기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103권, 2018, 235~267쪽.
- 손지연, 「근대 일본 미디어에 나타난 신여성 논의의 지형」, 『여성문학연구』27호, 2012, 241~268쪽.
- \_\_\_\_\_, 「근대 일본의 가부장제 시스템과 『세이토』」, 『比較文化研究』27집, 2012, 291~317쪽.
- 오고시 아이코, 『근대일본의 젠더 이데올로기』, 전성곤 옮김, 소명출판, 2009.
- 이지숙, 「1910년대 일본 신여성문학-『세이토』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34집, 2007, 157~175쪽.
- 후지메 유키, 『성의 역사』, 김경자·윤경원 옮김, 삼인, 2004.
- 江原由美子·金井淑子編, 『フェミニズム』, 新曜社, 1997.
- 光田京子, 「近代的母性觀の受容と変容-〈教育する母親〉から〈良妻賢母〉へ」, 脇田晴子編, 『母性を問う-歴史的変遷』下, 1985, 100~129쪽.
- 宮山昌治, 「大正期におけるベルクソン哲学の受容」, 『人文』第4号, 学習院大学, 2005, 83~104쪽.
- 宮野真生子, 「母性と幸福」, 『社会と倫理』第31号, 2016, 19~33쪽.
- 牟田和恵, 「戦略としての女-明治・大正の〈女の言説〉を巡って」, 『思想』812号, 1992, 211~230쪽.

- 山本ひとみ, 「伊藤野枝研究序説 —その生涯における『青鞥』と恋愛—」, 『比治山女子短期大学国文学会 紀要論文』3号, 1971, 41~53쪽.
- 石崎昇子, 「近代日本の産児調節と国家政策」, 『総合女性史研究』第15号, 1998년 3월, 15~32쪽.
- \_\_\_\_\_, 「日本の墮胎罪の成立」, 『歴史評論』제571호, 1997년 11월, 53~70쪽.
- \_\_\_\_\_, 「生殖の自由と産児調節運動」, 『歴史評論』第503号, 1992년 3월, 92~107쪽.
- 新・フェミニズム批評の会 編, 『『青鞥』を読む』, 學藝書林, 1998.
- 荻野美穂, 「フェミニズムと生物学: ヴィクトリア時代の性差論」, 『人間文化研究科年報』4号, 1988, 122~134쪽.
- 折井美耶子編, 『論争シリーズ5 資料 生と愛をめぐる論争』, ドメス出版, 1991.
- 青山菊榮, 「現代生活と売春婦」, 『新社会』, 1916년 7월호.
- 平塚らいてう, 「矢島楯子氏と婦人矯風会の事業を論ず」, 『新小説』, 1917년 6월호.
- \_\_\_\_\_, 「避妊の可否を論ず」, 『日本評論』第3卷第9号, 1917년 9월.
- \_\_\_\_\_, 「花柳病男子結婚制限法制定に関する請願運動」, 『女性同盟』創刊号, 1920년 10월.

## Abstract

### Life-centrism and Eugenics in the Modern Japanese Women's Movement: Focusing on the Politics of Sexuality in *Seitō*

Kim, Byeongjin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Seitō*(青鞵) represented women who questioned the ideology of the 'good wife and wise mother', which had been strengthened after the Meiji Restoration, as a "new woman" and led the women's movement in Japan in the 1910s. After modernization, Japan strengthened the logic of patriarchy, divided women into wives and prostitutes, and made women with jobs such as female workers invisible. The female intellectuals of *Seitō* also showed limitations in internalizing this premise. However, in the abortion debate,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sexual and reproductive sexuality within the institution was highlighted, and in the debate on the abortion, the human rights of women outside the institutional sex as the nucleus were highlighted.

Also, as in the case of Hiratsuka Raichō's eugenics and Itō Noe's life-centrism, scientific thinking at the time influenced the feminist movement. It cannot be overlooked that this aspect, pointed out as their limitation, was intended to expand the extension of the women's movement by securing scientific guarantee and ideological universality in the context of the time.

**Keywords:** *Seitō*, Fidelity, Abortion, Abolition of Prostitution, Eugenics, Life-centrism, Itō Noe, Hiratsuka Raichō

논문 투고일 : 2021년 03월 15일  
심사 완료일 : 2021년 04월 07일  
게재 확정일 : 2021년 04월 22일